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분명히 해야”

강기정 “국민의 목소리 ‘괴담정치’ 규정 태도 버려야” “위험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

강기정 시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19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정치’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는 7월 방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류에 대해 국민 84%(신론 인용)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국민의 의견을 비과학적 ‘괴담’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야 말로 비합리적·비과학적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과학적 태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민은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 나라에 합리적인 선택이 인류 전체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라며 “방류와 보관 중 무엇이 더 안전한지는 분명하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이 인류 전체에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가장 싸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 강 시장은 “오염수 해양방류는 위험과 비용을 공공재인 바다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오염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위험과 비용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방류를 막을 힘이 없는 일반 시민이 위험·비용·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풀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주 기자

강기정 시장 “스웨덴과 경제 문화 분야 협력 추진”

강기정 시장이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대사를 만나 교류의 물꼬를 텄다.

강 시장은 19일 오후 시청사에서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대사를 만나 “대사를 환영하는 의미로 시청사 국기 게양대에 스웨덴 국기를 게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타계 에를란데르 전 총리의 목요일 클럽 대화 모델을 본뜬 월요대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대사는 “2021년 한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방문했는데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는 등의 환대는 처음”이라며 “스웨덴은 광주에 명예영사를 둔 유일한 유럽 국가로 광주에서 매년 스웨덴영화제 등을 개최하며 시민들과 스웨덴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볼벤 대사는 “지금 한국에 진출해있는 120여 개의 스웨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광주가 스웨덴 기업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스웨덴의 여러 강소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광주에 자리잡은 곳은 아직 없다”며 “스웨덴 기업들이 자리 잡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투자유치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스웨덴 미술을 국가관의 형태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년정책 위원들과 기념촬영

김영록 지사와 신나라 청년위원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시청서재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적자 누적에 전남대병원 운영 포기

2013년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하다 재계약 포기

지난 10년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전남대학교병원이 요양병원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포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이 제2요양병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찾고 있다.

제2요양병원은 2013년 남구 덕남동에 문을 열었다. 부지 1만5385㎡·연면적 5359㎡,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196병상을 갖추고 있다. 진료 과목은 신경과·외과·재활의학과·내과 등 4개과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개원 당시인 2013년부터 제2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한 차례 재계약 과정을 거쳐 지난 10년간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전남대학교병원은 심각한 적자 이유로 더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광주시에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의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7월 31일이다. 광주시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지난 5월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류를 접수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이 같은 경우 재공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 기간을 뒀지만, 운영 의사를 밝힌 법인 또는 개인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차 공고 때 참여한 1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2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다.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위탁 사무는 노인성질환자(치매 포함)의 진료와 요양관리,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또는 개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는 단체협약 승계 등을 촉구하며 다섯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 방문국·기업·노조 잇발 계양한다

“포용성 상징”...기업 신제품 런칭·노동조합 기념일 등

광주시가 지역을 방문하는 국가나 기업은 물론 노동조합·자생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시청 1층 앞 국기게양대에 걸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주한 스웨덴 대사의 시청 방문에 맞춰 국기게양대에 스웨덴국기를 게양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환영의 뜻을 담아 광주를 찾는 방문국의 국기를

계양할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의 신제품 런칭이나 노동조합·자생단체·구청·공공기관 등의 기념일에 해당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깃발을 태극기와 함께 게양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작은 깃발 하나의 움직임이지만, 그 자체를 통해 광주의 포용성을 비출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흑산공항 조기착공, 행정절차 속도”

김 지사도민과의 대화·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등 약속

김영록 지사는 19일 “102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현안인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신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 개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연도교가 완성되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안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군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박우량 군수는 지도읍 주민의 정원 향유와 관광객 유치에 위해 라일락정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전남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요청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도정 비전 발표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안의 자랑인 명품 천일염의 유통·판매 확대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갖춘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되면 450여개의 기업 유치와 연관산업 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남권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신안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안=박정희 기자

맞춤형 자전거길 5곳 안전·편의 개선 나선다

도,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 등 5곳 선정...14억1000만원 확보

전남지역 맞춤형 자전거길 5곳에 대한 안전·편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토중추 자전거길 정비사업’ 공모에 4곳,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에 1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14억1000만원을 확보한 5개 시·군은 2012년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정비사업 이후 노후화된 자전거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중추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담양 영산강·섬진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곡성 보성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영양 국토중추 자전거길 정비사업’ 등 4곳이 대상이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은 순천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안전개선 사업 대상인 ‘순천 조례동 엔지(NC백화점~조례사거리)’를 잇는 길이 2km 자전거길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이 많고 도로 노후화로 이용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김도기 기자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K-Health 국민의료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후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